“ ‘절구통수좌’ 효봉 스님 수행가풍 잇자”

송광사, 효봉 스님 50주기 추모
11월까지 〈금강경〉 주제 대법회
“수행도량 전통 계승해
모범 수행자 거듭나자”
추모록 · 일대기 봉헌도


송광사 사중스님들이 효봉 스님 입적 50주기 추모다례재서 부도탑을 돌며 큰스님의 가르침을 되새기고 있다.

조계종 통합종단 초대종정을 지낸 효봉 스님(1888~1966) 입적 50주기를 기념하는 추모다례재가 거행됐다.

조계총림 순천 송광사(주지 진화)는 10월 2일 대웅전에서 방장 보성 스님, 문도 스님 100여 명을 비롯해 300여 대중이 참여한 가운데 효봉 스님의 입적 50주기를 맞아 큰스님의 뜻을 기리는 다례재와 부도탑돌이 행사를 봉행했다. 추모다례재는 현호 스님의 추모록 〈무무문〉과 효봉 스님의 일대기를 그린 이정범 작가의 전기소설 〈붓다가 된 엿장수〉의 봉헌의식도 함께 진행됐다.

효봉 스님은 ‘절구통수좌’란 별명을 얻을 정도로 남달리 수행정진해 수많은 스님과 재가자들의 모범이 된 수행자다. 특히 조계종 통합종단의 출범 후 초대종정에 오른 한국불교 근현대사의 큰 스승이다.

다례재서 송광사 주지 진화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송광사에는 큰스님 수행력으로 이뤄진 절구통수좌의 수행정진 가풍이 이어져 오고 있다. 앞으로도 송광사가 수행도량의 전통을 이어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큰스님 열반 50주년을 맞아 기념행사와 추모세미나, 큰스님의 정신을 담아낸 책 등을 발간하게 돼 감사하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송광사는 이 같은 효봉 스님의 수행력을 본받고자 9월 29일 입재한 ‘금강산림대법회’를 11월 17일까지 경내 사자루서 봉행한다. 주제는 대승불교 대표 경전인 〈금강경〉이다.

올해로 12회째인 금강산림대법회에는 종단 고승대덕 스님들이 법사로 초청돼 〈금강경〉에 담긴 깨달음의 이치와 수행방법을 설명할 예정이다.

행사는 29일 방장 보성 스님의 입재법어에 이어 여수 석천사 주지 진옥 스님, 부산 홍법사 주지 심산 스님, 서울 흥천사 회주 정념 스님, 송광사 율주 지현 스님, 해남 대흥사 주지 월우 스님, 합천 해인사 주지 향적 스님, 하남 광덕사 주지 무상 스님 등 총 8명의 스님들이 참여해 〈금강경〉과 관련된 지혜의 법문을 불자들에게 들려준다.

송광사 말사 스님을 비롯한 500여 신도들이 참여한 29일 입재식에서 보성 스님은 법문을 통해 “〈금강경〉을 독송하면 부처님을 늘 내 곁에 모시는 것과 같고 호법선신이 나를 지켜주는 것과 같다”며 “불자님들도 생활 속에서 〈금강경〉을 수지독송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입재법문에 이어 〈금강경〉 제1분부터 제5분까지의 해설은 송광사 선원 유나 현묵 스님이 설명했다.

법회는 매주 목요일 오전 11시 송광사 사자루에서 진행하며, 법회가 열리는 49일 동안 매일 영가천도기도가 함께 봉행된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이웃 고충 살피는 게 과업”

호남 부루나존자를 찾아서
익산 정각사 주지 일행 스님

불교세 미약한 시골서
텃밭 일구며 이웃 도와
선지식 초청법회 비롯
복지사업도 적극 펼쳐

“불교세가 미약한 시골에서 사찰 운영하는 게 참으로 어려운 일이지만 손 놓고 있을 수만은 없죠. 각 사찰마다 특성화된 포교프로그램을 통해 신행활동을 이끌어 가야합니다.”

전국에서 개신교의 교세가 가장 활발하다는 전북 익산. 그 중에서도 시골 작은 사찰에서 전법과 포교활동을 병행한다는 것은 실로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다. 하지만 열악한 환경에 굴하지 않고 원만하게 수행하고 있는 스님이 있다. 바로 오산면 정각사 주지 일행 스님〈사진〉이다.

1999년 도시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 신도도 많지 않고 진입로도 논두렁길 밖에 없던 시골사찰 정각사를 인수한 일행 스님은 가장 먼저 20평 규모의 극락전 불사를 시작했다. 농촌마을의 작은 절에서 불사를 일으킨다는 것은 도통 엄두가 나지 않는 일이었지만 2000년부터 토지매입 불사를 시작해 2004년 극락전을 완공했다. 2006년에는 요사채 2동을 신축하고 그 후 조금씩 주변 토지를 사들여 현재 2000평에 이르는 토지를 마련해 비로소 여법한 사찰의 면모를 갖췄다.

일행 스님은 넉넉지 않은 사찰살림을 꾸리고 불사를 진행하기 위해 주변 밭 500평서 고추, 배추 등 농작물을 심어 재정 확보에 힘을 보탰다. 그것도 부족해 주변 농지 2만평을 임대해 농사를 직접 지으며 선농일체 정신으로 사찰을 운영하고 있다.

“농촌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농사밖에 없었습니다. 다행히 도시 불자들의 주문이 늘어나 어렵지 않게 판로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이젠 농사꾼 다 됐다는 말을 듣기도 합니다.”

일행 스님은 이외에 체계적인 신도들의 교육을 위해 매월 정기적으로 선지식 초청법회를 열었다. 정각사의 선지식 초청법회는 시골에서는 만나기 어려운 유명스님들을 초청, 법문을 청해 들으며 신심을 높이고 불자로서 자부심을 느끼게 하는 자리다.

매주 토요일에는 어린이 영어법회를 열어 청소년 포교에도 노력하고 있다. 시골사찰이라 많은 어린이들이 참석하지는 않지만 10명 정도의 초등학생들이 꾸준히 참석하고 있다. 그런 노력 덕분인지 신도수가 차츰 늘어나는 추세다.

어느 정도 사찰운영이 안정세에 접어들자 스님은 복지사업에 눈을 돌렸다. 출가 전부터 어려운 사람들을 돕겠다고 마음먹고 있던 스님은 평생을 불자로 살아오다 임종을 앞두고 타 종교로 개종하는 현실을 보고 복지사업에 뛰어들기로 작정해 올해 5월 정각복지센터를 출범했다. 절 옆의 토지를 매입해 건평 60평 규모로 지은 정각복지센터는 주야간방문보호사업과 방문요양사업을 펼치고 있다. 일행 스님은 정각복지센터가 안정권에 들게 되면 유치원과 양로원 같은 시설을 마련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농사와 포교, 기도와 수행, 복지사업까지 1인 다역을 수행하고 있는 스님은 지난 1월 익산시 사암연합회장에 취임해 눈코 뜰 새 없는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다.

“주변 이웃을 살피며 경제적인 사정으로 학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소년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등 여러 계층의 고충을 파악하는 것이 불교의 역할이자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익산시 사암연합회장으로서 지역의 불교행사는 물론 각 사찰의 다양한 민원해결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일정을 소화하고 있는 일행 스님. 스님은 오늘도 지역 불교 발전과 어려운 이웃을 돕고자 곳곳을 살피며 하루를 보낸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소년소녀가장 돕기 산사음악회 열려

화순 도원사, 장학금 전달도

화순지역 소년소녀가장을 돕기 위한 산사음악회가 열렸다.

모후산 도원사(주지 진철)는 10월 3일 경내에서 도원사 창건 12주년을 기념해 ‘제7회 소년소녀가장 돕기 산사음악회’를 개최하고, 장학금을 전달했다.

음악회에는 선각종 총무원장 정암스님을 비롯해 종단 스님들과 구충곤 화순군수, 신도 300여 명이 참석했다. 기념식에 이어 가수 김용임, 현진우, 정현, 온희정, 정주호, 서명희 등과 지역주민들로 구성된 모후산 난타공연단이 수준 높은 공연을 대중에 선보였다.

진철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어려운 환경에서 학업과 가정생활을 이어가는 아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전하고자 행사를 개최했다. 앞으로도 더 많은 청소년에게 도움을 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구충곤 군수는 축사를 통해 “화순군의 발전과 지역 아이들에게 큰 관심을 갖는 도원사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어르신들, 생신 축하드립니다!”

마이산 탑사 · 쌍봉사
홀몸어르신 초청 생일잔치



진안 11개면 어르신 100명이 참가한 ‘어르신 생신상 차려드리기’

전북 진안 마이산 탑사와 쌍봉사가 가족과 떨어져 홀로 지내면서 변변한 생일상 한 번 받지 못하는 지역 홀몸어르신 100명을 초청해 성대한 생일잔치를 열었다.

마이산 탑사(주지 진성)와 쌍봉사(주지 보경), 진안동부새마을금고는 10월 6일 진안군 마령면 주민지원센터 2층 강당에서 진안지역 11개면 홀몸어르신 100명을 위한 생신잔치를 열었다.

올해로 5회째 진행된 이날 생일잔치는 나누우리봉사단의 난타와 색소폰 연주, 부채춤, 살풀이춤 등 흥겨운 공연이 펼쳐졌다. 특히 보경 스님은 어르신들이 좋아하는 트로트를 열창해 박수갈채를 받았다.

생일잔치에서는 자원봉사자들이 직접 3일 동안 만든 100개의 생일케이크와 찰밥, 미역국, 갈비찜 등 푸짐한 생일상을 어르신들을 위해 차리고, 함께 레크리에이션을 즐기는 시간을 보냈다. 생일잔치에 참석한 어르신들에게는 쌀 5kg, 라면, 김, 화장지 등 생활필수품으로 구성된 푸짐한 선물이 전달됐다.

또한 마령면과 정천면에서 발생한 주택화재로 인해 생활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르신들도 초청해 따뜻한 점심식사와 위문품, 재래시장 상품권 등을 전달해 행사의 의미를 더했다.

탑사 주지 진성 스님은 “즐거워하시는 어르신들의 모습을 보면서 큰 보람을 느낀다”며 “앞으로도 홀몸어르신 생신상 차려드리기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의 소외된 이웃을 돌보는 일을 게을리 하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쌍봉사 보경 스님도 “가족과 떨어져 제대로 된 생일상을 받지 못하는 어르신들을 위해 행사를 준비해 더욱 의미가 있다”며 “다른 농촌 지역에서도 이런 행사가 활성화되어 어르신들에게 큰 힘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행사를 준비하고 후원한 진안 마이산 탑사와 쌍봉사는 김장김치 나누기, 자비의 연탄 나누기 등 지역사회의 자원봉사활동에 적극 동참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전법과 포교활성화에도 힘을 싣고 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